

## 친환경농업 A영농법인과 B농업회사법인의 경영실태 분석\* - 충남 아산의 친환경 생산자조직을 사례로 -

김 호\*\*

### Analyses on Management Situations of 'A' and 'B' Corporations as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Organization at Asan

Kim, Ho

This study analyzed management situations of two organizations that have produce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and processed meat products. 'A' farming corporation sells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like as grains, vegetables, fruits and processing foods. 'B' agricultural corporation processes and sells environment-friendly processed meat products, specially organic and antibiotic-free beef products. Recently, members and production areas of 'A' farming corporation have decreased because of their aging and labor shortage. And Indices for the management analysis are stability ratio, activity ratio and profitability ratio. Stability ratio indices are debt ratio, net worth ratio, fixed ratio and current ratio. Activity ratio ones include fixed assets turnover and net worth turnover. And profitability ratio is showed through return on investment, net return on sales and return on equity.

Key words :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organization, indices of management analysis, management situation*

---

\* 이 연구는 2021년도 단국대학교 연구년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hokim@dankook.ac.kr)

## I. 서 론

2015년 이후부터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및 농가 수의 증가가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등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각각 약 75,125 ha와 79,479 ha이었는데, 2020년에는 약 81,827 ha이었다. 유기인증 면적은 증가추세인 반면, 무농약 인증면적은 감소추세이다. 2015년과 2016년<sup>1)</sup>에 무농약 인증면적은 각각 56,994 ha와 59,617 ha이었는데, 2020년에는 43,286 ha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수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0,010호와 61,946호이었는데, 2020년에는 59,249호이었다. 유기인증 농가는 증가한 반면에 무농약 인증 농가는 감소하였다. 저농약 인증이 폐지된 2016년에 유기인증 농가는 12,896호에서 2020년 23,750호로 84.2% 증가하였다. 무농약 인증 농가는 2016년 49,050호에서 2020년 35,499호로 27.6% 감소하였다(www.enviagro.go.kr).

선행연구를 보면, 사례지역의 친환경 생산자조직 회원 316농가를 조사한 것으로서 친환경 농업으로 인해 농가소득의 향상보다는 소득의 안정을 선호하였고, 관행농업 농지를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의사가 많지 않았다. 또 친환경농가는 향후 소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낮았다. 친환경농업을 이어갈 후계인력 확보계획도 낮게 나타났다(Kim, 2013).

이러한 인증면적 및 농가 수의 감소 현상의 원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완화하고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화학적 자재를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생태적 건전성과 자원순환형 농업경영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다. 친환경농업의 쇠퇴는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농업 환경보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가 및 인증면적의 감소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각각 2000년과 2008년에 설립되어 최근까지 구성원 수 및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온 친환경 생산자조직인 두 개의 농업법인이다. 그리고 두 생산자조직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2년간의 총회 자료를 이용하였다. 생산자회원 수 및 생산면적의 증감 원인을 살펴보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근거로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 II. 사례 조직의 현황과 경영분석 지표

A영농조합법인은 2000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 조합원은 286명이고 출자

1)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었다.

자는 55명이다. 2021년 말 현재 매출액은 약 345억 원이었다. B농업회사법인은 친환경 쇠고기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며 2008년 6월에 69명의 주주로 창립되었고, 2021년 말 현재 주주는 50명이며 매출액은 약 68억 원이었다. A영농조합법인은 곡물류 및 청과물과 가공식품을 생산·유통하는 조직이다. B식품은 친환경 쇠고기를 가공·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다.

이 연구에서 두 조직을 선정한 이유는 A와 B조직이 동일한 생산자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생산물을 취급하며, 출자 등을 통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A와 B조직 모두 생산자회원과 계약재배(사육)를 통해 상호 합의된 가격에 의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A영농조합법인의 회원 수와 인증면적은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Table 1, Fig. 1). 2003년 250명에서 2005년에 382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 27명이 줄었는데 이는 항공방제 지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며, 2008~2010년의 회원 수 감소 원인은 항공방제, 수질 문제로 인한 인증취소, 고령화에 따른 회원 탈퇴 등에 있다. 그리고 2011년(349명)과 2012년(356명)에 회원이 각각 16명과 7명이 증가한 것은 벼 재배지역을 단지화하는 과정에서 인증농지 인근에 있는 비인증 농가를 신규로 가입시킨 결과이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회원 수와 인증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고령 및 건강문제와 사망으로 인한 영농활동 중단에 있다. 그리고 관행농업으로 전환, 인증취소, 산업단지 및 도로 개설에 의한 농지 감소, 임차지 반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으로 병해충 방제 및 제초작업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또 단지화된 생산지보다는 독립된 필지의 농가의 탈퇴가 두드러지고 있다('A' farming corporation, each year).

Table 1. Changes of members

(Unit: persons, 1,000 m<sup>2</sup>)

	2003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Members	250	382	333	344	333	330	330	318	316	286
Production areas	2,703	4,832	4,404	4,058	3,943	3,906	3,906	3,782	3,609	3,187

Sources: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

A영농법인과 B농업회사법인의 경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경영분석 지표는 경영안정성(stability ratio), 경영활동성(activity ratio), 수익성(profitability ratio) 등 세 가지이며, 두 조직의 연도별 재무제표를 이용하였다.

경영성과 분석을 위한 산식(KIPF, 2012; Kim, 2012, 2018)에서, 경영안정성은 부채비율(debt ratio), 자기자본비율(net worth ratio), 고정비율(fixed ratio), 유동비율(current ratio)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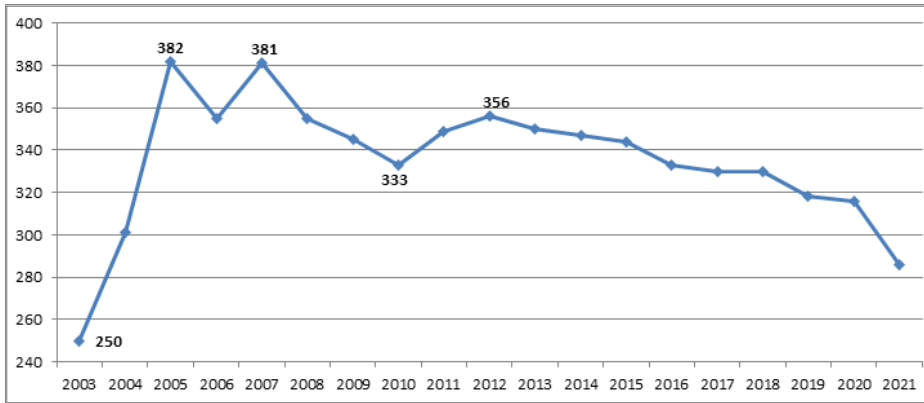


Fig. 1. Changes of total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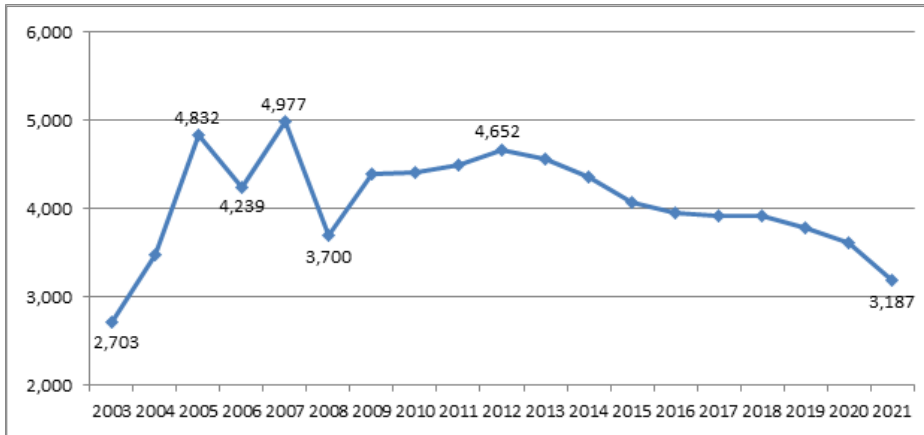


Fig. 2. Changes of total production areas.

용하여 분석하였다(식 (1)~(4)).

$$\text{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액}}{\text{자기자본액}} \times 100 \quad (1)$$

$$\text{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산}} \times 100 \quad (2)$$

$$\text{고정비율} = \frac{\text{고정자산}}{\text{자기자본}} \times 100 \quad (3)$$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quad (4)$$

경영활동성은 고정자산 회전율(fixed assets turnover)과 자기자본 회전율(net worth turnover)

로 분석하였다(식 (5)~(6)).

$$\text{고정자산회전율} = \frac{\text{순매출액}}{\text{고정자산}} \times 100 \quad (5)$$

$$\text{자기자본회전율} = \frac{\text{순매출액}}{\text{자기자본}} \times 100 \quad (6)$$

수익성은 총자본 이익률(return on investment)과 순매출 이익률(net return on sales), 자기자본 이익률(return on equit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식 (7)~(9)).

$$\text{총자본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순자본}} \times 100 \quad (7)$$

$$\text{순매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quad (8)$$

$$\text{자기자본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quad (9)$$

### Ⅲ. 경영실태 분석

A영농조합법인은 2000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말 현재 조합원은 286명이고 출자자는 55명이다. 2021년 말 현재 매출액은 약 345억 원으로서 2010년~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3.47%이다. 2017년부터 매출액이 3백억 원을 넘은 이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B농업회사법인은 친환경 쇠고기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며 2008년 6월에 69명의 주주로 창립되었고, 2021년 말 현재 주주는 50명이다. 2021년 말 현재 매출액은 약 68억 원으로서 2010년~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6.33%이다. 2017년에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2018년부터 매출액이 감소 및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두 조직은 모두 친환경농산물 및 축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고 있으며, 출자 및 조합원이 상호 중복될 뿐 아니라 A영농조합법인은 주요 주주로서 B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였다. A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곡물류, 청과물류 등의 유통과 두부 및 두유 등 콩 가공식품의 생산·유통을 수행하고 있다. B농업회사법인은 친환경 쇠고기의 육가공 및 유통을 전문으로 하며, 두 조직 모두 동일한 생산자연합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영구조상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호 연관성이 있는 두 법인에 대해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Table 2. Changes of total sales

(Unit: million won)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 Farming corporation	23,931	30,135	29,464	30,128	30,566	31,612	34,028	34,488
'B' Food corporation	3,736	5,826	6,326	7,060	6,747	6,659	6,828	6,776

Sources: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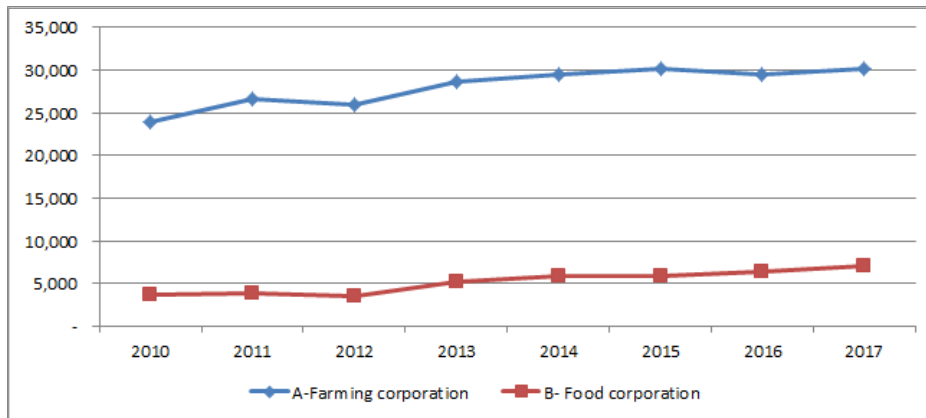


Fig. 3. Changes of total sales.

## 1. A영농조합법인

### 1) 경영안정성

경영안정성에 관한 지표인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유동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Fig. 4). A영농조합법인은 2015년까지는 경영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으나, 2016년 이후 다소 안정되고 있다. 부채비율을 보면, 표준비율인 100% 이하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불안정한 경영실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15년에 198.0%이며,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04.1%와 228.5%이었다. 2014년에 식품가공공장을 확대 신축 이전하면서 대규모의 외부자본을 차입함으로써,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2021년에 155.2%로 줄었지만, 아직도 2010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적인 부채차입은 자제하고, 출자 증대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자본비율도 표준비율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고정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자본의 유동성이 매우 낮다. 고정비율은 100% 이하가 이상적인데 2015년에 176.0%, 2021년 165.9%이었다. 그리고 유동비율의 이상적인 기준은 200%인데, 이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 2021년에 79.9%로서 유동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지불능력이 불리한 상태이다.

Table 3. Changes of A-farming corporation's stability ratio

(Unit: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Debt ratio	135.5	198.0	178.6	169.7	168.9	155.9	162.1	155.2
Net worth ratio	42.5	33.6	35.9	37.1	38.4	39.1	38.1	39.2
Fixed ratio	121.6	176.0	172.8	168.1	162.8	168.8	171.7	165.9
Current ratio	119.0	93.7	99.2	108.2	99.6	91.3	84.0	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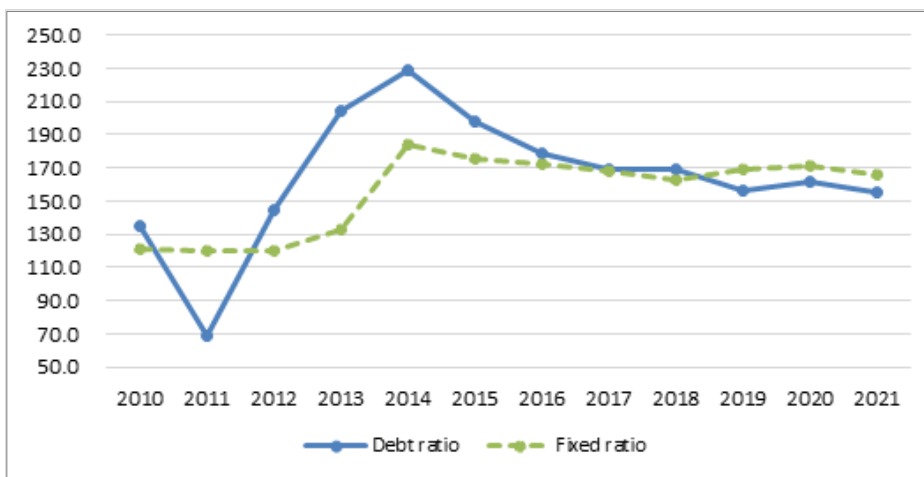


Fig. 4. Changes of debt ratio and fixed ratio.

2) 경영활동성

경영활동성 지표는 고정자산 회전율과 자기자본 회전율이다. 고정자산 회전율은 고정자산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비율로서 기업자본의 이용도를 나타낸다. 이 비율이 높으면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자본 회전율은 자기자본의 회전속도를 의미하며, 자기자본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2015년 이후 고정자산 회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고정자산에 투자된 자본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과잉투자에 따른 설비 운용의 비능률과 고정비의 증가로 수익성과 유동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9년 232.1%로 증가한 이후 2021년에 257.5%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고정자산의 활용도를 더 높이고 매출액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자기자본 회전율이 높으면 수익증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20년과 2021년 각각 431.9%와 431.6% 등 자기자본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아 자기자본의 과소현상이라는 재무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Table 4. Changes of A-farming corporation's activity ratio

(Unit: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Fixed assets turnover	372.3	250.4	154.6	225.9	225.6	232.1	248.4	257.5
Net worth turnover	450.2	433.8	393.2	368.9	372.3	384.8	431.9	431.6

## 3) 수익성

수익성 지표인 총자본 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은 2019년까지는 모두 하락 추세이었으나 2020년부터 약간 증가하고 있다(Table 5, Fig. 5). 사용한 총자본이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가를 나타내는 총자본 이익률은 2010년 5.5%에서 2015년 2.0%, 2020년과 2021년 각각 1.1%와 1.4%이었다. 이는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 순이익률 또한 2010년 3.1%이었는데, 2016년 이후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최저 수준인 0.5%이었다. 자기자본 수익률도 2010년 13.8%에서 2019년에는 최저 수준인 1.7%까지 떨어졌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0%와 3.6%로 증가하였다.

Table 5. Changes of A-farming corporation's profitability ratio

(Unit: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Return on investment	5.5	2.0	1.0	0.7	1.2	0.7	1.1	1.4
Net return on sales	3.1	1.4	0.7	0.5	0.8	0.4	0.7	0.8
Return on equity	13.8	6.0	2.9	1.9	3.2	1.7	3.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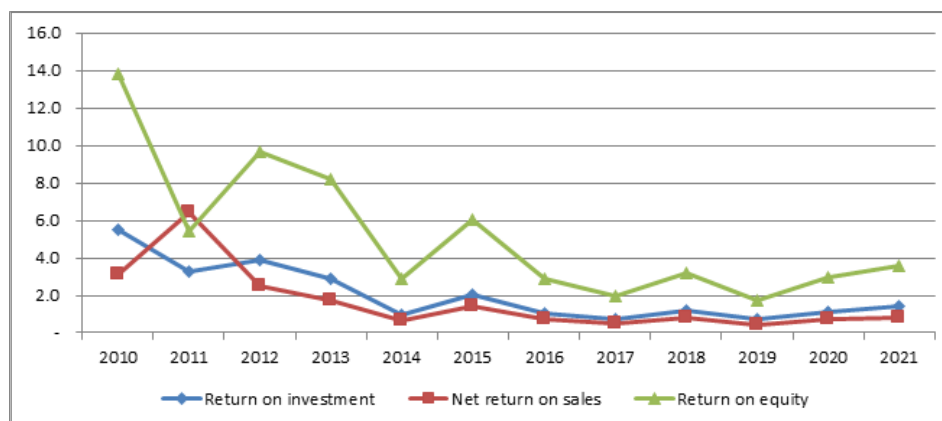


Fig. 5. Changes of A-farming corporation's profitability ratio.



2014년의 과잉투자로 인한 수익성의 하락 추세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의 총자본 이익률은 0.9%, 매출액 순이익률 0.6%, 자기자본 이익률 2.9%이었는데, 2021년에는 각각 1.4%, 0.8%, 3.6%로 증가하였다(Fig. 5). 수익성 지표는 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2. B농업회사법인

### 1) 경영안정성

B식품은 유동비율을 제외하고 다른 지표는 대체로 양호하였다(Table 5). 부채비율은 2016년의 90.2%와 2017년 81.5%로서 비교적 높았으나, 100% 이하로 건전한 편이다. 자기자본 비율은 2010년~2021년 12개년 평균 62.0%로서 일반적 표준비율인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한 재무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고정비율 또한 2010년~2021년 12개년 평균 62.1%로서 10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유동비율은 전반적으로 불리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114.5%와 2016년 220.5% 등을 제외하고 300%를 초과하고 있으며, 2010년~2021년 12개년 평균 373.4%이었다. 이처럼 유동비율이 높은 원인은 재고자산(친환경 한우 원재료)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B농업회사법인은 한우농가 회원과 계약생산을 하고 있는데, 소의 사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급조절을 위해 다량의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농가의 차기 출하량을 예측하여 재고자산을 시의적절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만성적인 적체 부위에 대한 가공(예: 사골을 이용한 곰탕 가공 등)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6. Changes of B-food corporation's stability ratio

(Unit: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Debt ratio	84.1	46.1	90.2	81.5	52.6	48.7	45.9	55.3
Net worth ratio	54.3	68.5	52.6	55.1	65.5	67.2	68.5	64.4
Fixed ratio	87.8	57.2	56.4	51.6	50.3	53.1	55.1	59.9
Current ratio	114.5	300.0	220.5	371.0	541.1	532.3	470.5	387.4

### 2) 경영활동성

B농업회사법인의 고정자산 회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서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able 7). 2010년 420.2%에서 2014년 698.1%, 2017년에는 850.6%이었다. 그리고 자기자본 회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수익증대의 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자기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Table 7. Changes of B-food corporation's activity ratio

(Unit: %)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Fixed assets turnover	420.2	703.3	751.3	850.6	857.3	832.4	792.6	743.0
Net worth turnover	377.4	404.1	415.1	456.1	437.3	428.8	418.7	438.0

### 3) 수익성

총자본 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가 2015년까지는 주기적으로 변화하였다. 소 출하주기에 따라 수익성 지표도 주기성을 보이게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 생산된 소가 일시에 출하되기 때문이다. 계약 농가별 송아지 입식 시기를 조절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출하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수익성 지표가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Table 8). 이는 2016년 한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소비자의 수요가 감소했으며, 재고량의 과다 보유로 자산이 증가하고 매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 일시에 매입한 쇠고기가 수요보다 많아 이를 할인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B' corporation, each year). 2021년에는 3가지 수익성 지표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즉 총자본 이익률은 -2.0%, 매출액 순이익률 -0.7%, 자기자본 수익률 -3.0%이었다.

총자본 이익률의 최고치는 2013년 8.6%이었고, 최저치는 2021년 -2.0%이었다. 2010년~2021년 12개년 평균은 4.8%이었다.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주기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0.7%로 최저치를 나타냈고 2011년에는 3.9%로서 최고치이었다. 2010년~2021년 12개년 평균은 1.9%이었다. 소 생산시기의 조정과 매출의 확대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자기자본 수익률은 2010년~2021년 12개년 평균 7.5%로서 평균치로 보면 경영상 문제는 없으나 연도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Table 8. Changes of B-food corporation's profitability ratio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Return on investment	7.2	7.9	5.8	3.0	1.8	2.0	4.3	-2.0
Net return on sales	3.0	2.7	2.3	1.2	0.7	0.7	1.5	-0.7
Return on equity	11.3	11.1	9.6	5.6	3.0	3.0	6.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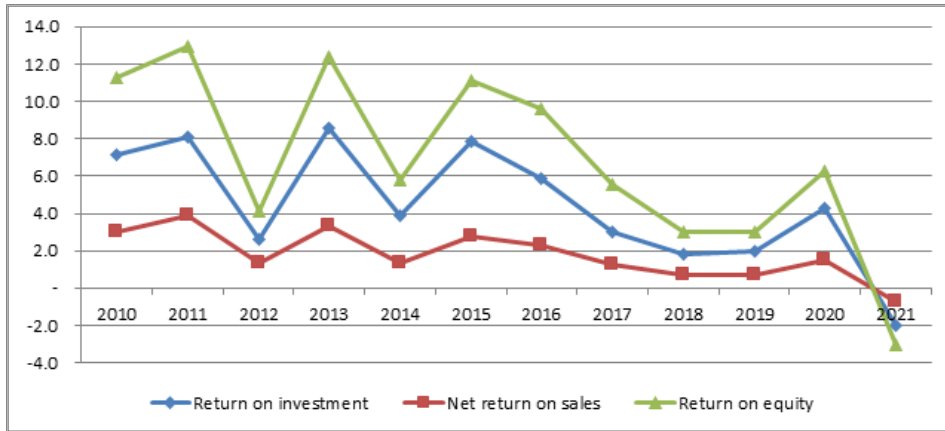


Fig. 6. Changes of B-food corporation's profitability ratio.

이처럼 수익성 지표가 모두 적자를 나타낸 것은 농가로부터의 한우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마진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축산 원자재가격이 상승함으로써, 한우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계약농가는 매입가격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는데, 출하처에 대한 공급가격은 인상되지 않아 마진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재고자산이 전년 대비 35.7% 증가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B' corporation, 2022).

#### IV. 요약 및 결론

친환경 곡물류 및 청과물, 가공식품을 생산·유통하는 조직인 A영농조합법인과 친환경 쇠고기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B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영농조합법인의 경영실태 분석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과 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다. 사례 조직의 경우도 회원 농가 수가 2005년 382명에서 2021년에 286명으로 96명 감소하였다. 또 인증면적도 2005년 483.2 ha에서 2021년 318.7 ha로 164.5 ha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고령화와 건강문제, 사망 등으로 나타났다. 농업 전체의 과제인 농촌 고령화로 인한 후계인력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을 영위할 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고령농과 귀농청년농 간 연계를 통한 상생 결연관계 구축이 있다. 고령농은 청년농에게 농사기술과 농촌사회의 특성 및 전통문화 등을 계승하고, 청년농은 고령농 보살핌과 마을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 등을 하는 것이다.

둘째, 2014년의 식품공장 신축 및 확장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 이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던 경영안정성 지표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표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시급하지 않은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 그 당시 투자자본을 외부에서 차입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이 표준비율이 50% 미만(2021년 39.2%)이고 부채비율도 155.2%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자본의 충당을 위해 생산자회원으로부터 출자를 증대시키거나, 이익잉여금에서의 충당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경영활동성 지표를 보면, 2015년 이후 고정자산 회전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고정자산에 투자된 자본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설비 운용의 비능률과 고정비의 증가로 수익성과 유동성이 낮아지고 있어, 2019년 232.1%로 증가한 이후 2021년에 257.5%를 나타내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자기자본 회전율에 따른 재무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수익성 지표는 2020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 자본 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 순이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도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으나, 2010년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출하계약을 맺은 현재의 판로 이외에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또 현재의 학교급식과 로컬푸드 매장의 공급량을 늘리고,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매출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B농업회사법인의 경영실태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안정성 지표 중 유동비율을 제외하고,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100% 이하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다. 그런데 만성적인 과제인 재고의 과다 보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계약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의 송아지 입식 시기를 분산시켜 연도별 출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매년 적체 비율이 높은 부산물(사골 등)의 가공 판매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경영활동성에 있어 고정자산 회전율과 자기자본 회전율은 큰 변동이 없어, 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자본 회전율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재무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2021년 매출액이 약 68억 원으로서 2010년 약 37억 원의 1.9배 정도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를 고려한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새로운 시설의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수익성 지표인 총자본 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등이 2015년까지는 주기성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부터는 하향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 농가의 사육 시기의 조절과 매출의 증대를 통해 수익성 지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특히 2021년에 창립 이래 최초의 적자가 나타난 주된 원인인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마진의 조정을 위한 계약 출하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수익성 지표를 개선하는 결정변수인 당기순이익의 증대가 중요한 과제이다.

[Submitted, September. 24, 2022; Revised, October. 29, 2022; Accepted, November. 8, 2022]

## References

1. Kim, H. 2012. Implications and Analyses on the Management Situation of a Consumer's Cooperative.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24(4): 385-391.
2. Kim, H. 2013. A Case Study on Management Situations of Environment-friendly Farming and Its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21(3): 321-334.
3. Kim, H. 2018. Issues and Analyses on Management Situation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Organizations.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26(4): 599-607.
4. Kim, O. Y. and Kim, H. 2016. A Case Study on Operating Situations of Environment-friendly School Food Service Center managed directly by Local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24(1): 45-59.
5. KIPF. 2012. Finance Analysis.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nline at [www.kipf.or.kr](http://www.kipf.or.kr)). Accessed 11 June 2012.
6. Pugundle and Handle. General Meeting Reports. each year.